

전남경찰 드론 띄워 치매노인 찾는다

전남지역 치매실종 매년 급증
민간인 49명 수색봉사단 발대
열화상카메라 야간수색도 가능



전남지방경찰청 남도마루에서 지난 19일 열린 전남 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에서 최관호(앞줄 왼쪽에서 9번째)전남경찰청장이 드론 봉사대원들과 활약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전남에서 치매실종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드론을 활용한 '골든타임' 사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은 산악지대와 해안가 등 수색이 어려운 장소가 많은 반면 CCTV 등 치안 인프라는 취약해 실종자를 찾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19일 전남청에서 전남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야간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색을 통해 치매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은 치매노인 인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2만 8000여명(추정치 최대 4만 7000여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치매실종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전남지역 치매실종 노인은 최근 5년 기준으로 2014년 204명, 2015년 248명, 2016년 263명, 2017년 304명, 2018년 9월 현재 24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경우

실종 사건 발생시 이동 동선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산악지대와 해안가가 많은 전남은 비탈진 절개지, 계곡, 갯벌 등 수색이 어려운 지형이 많이 분포돼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경찰은 내부적인 고민과 논의 끝에 드론을 활용한 수색기법을 활용하기로 하고,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드론수색봉사대를 발족했다.

드론수색봉사대는 말 그대로 봉사를 위해 스스로 봉진 치안 보조자들로, 조종면

허가 있고 봉사정신이 높은 지원자 4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드론 비행과 활용에 따르는 승인 문제 등도 해결했다.

드론수색봉사대는 실종자 수색이 어려운 곳에 집중 투입되며,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해 야간수색도 가능하게 됐다.

전남경찰은 경찰서마다 연락망을 두고 치매노인 실종사고 발생 시 지상과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색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 분기마다 간담회를 갖고 실종수

색 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하는 등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김민주 전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드론수색봉사대는 민·경이 협력한 공동체 치안의 표본으로, 육안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치안보조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치매실종자 수색은 물론 재해재난 등 인명구조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4 달뜨기 16:49
해질 17:49 달지기 03:57

낮엔 포근해요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었다.

광주	구름많음	9/20	보성	구름많음	4/19
목포	구름많음	10/19	순천	구름많음	9/21
여수	구름많음	13/20	영광	구름많음	7/20
나주	구름많음	6/21	진도	구름많음	7/20
완도	구름많음	11/20	전주	구름많음	9/20
구례	구름많음	6/20	군산	구름많음	8/19
강진	구름많음	7/21	남원	구름많음	6/20
해남	구름많음	6/20	흑산도	구름많음	14/19
장성	구름많음	6/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 생활지수

☁️	관심
☀️	보통
👁️	보통

◇ 주간 날씨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	☀️	☀️	☁️	☀️	☁️	☁️
11/20	10/21	9/22	11/19	11/16	8/17	8/17

광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18%... 전국 4번째 낮다

사립유치원이 4배 이상 많아
전남 52%로 전국 2번째 높다

광주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주 공립유치원 원아는 4495명, 사립유치원 원아는 4배 이상 많은 2만 114명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8.3%다. 광주에는 공립유치원이 129곳, 사립유치원이 185곳 있다. 학급으로는 2016년 기준, 공립 251학급, 사립 1051학급이다. 가장 낮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을 보인 광역단체는 부산으로 15.5%였다. 다음으로 대구 17.5%, 서울 18.0%였다. 가장 높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인 곳은 세종(96.2%)이었고 다음은 52.2%를 보인 전남(공립 1만 227명, 사립 9393명)이었다. 전남에는 공립유치원 434개, 사립유치원 117개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 평균은 25.5%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조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이 적어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독단적 운영, 불투명한 운영이 싹 틔웠다.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에 맡기고 싶지만 찾기가 힘들어 상대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놓였고 관리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 반발과 '표'를 의식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비리유치원 제보창구를 개설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이날 하루 각각 1건씩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교육청 22~26일 '예비 고1을 위한 대입 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EBS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순천, 목포, 나주, 여수, 광양 등 5개 권역에서 '예비 고1을 위한 대입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안내하는 첫

설명회는 22일 오후 7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23일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24일 나주 봉황고 시청각실, 25일 여수문화홀, 26일 광양 마동중학교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진행

된다.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7시로 동일하다.

설명회에서 교육청 담당자는 '일반고 교육 혁신 계획 및 도교육청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EBS 강사는 '예비 고1을 위한 과목선택 방법 및 예비 학습 전략'을 설명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미수습 5명 흔적 못찾고... 세월호 수색작업 마무리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진행한 '마지막 수색'이 성과없이 종료됐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현장수습본부는 "올해 5월 세월호 직립 후 재개한 마지막 수색 작업을 지난 19일 까지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날 말까지 진흙 잔해가 쌓인 아저청 등 현장을 모두 정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수색을 마쳤지만, 미수습자로 남았던 단원고 남원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허규부자 등 5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3년 만인 작년

4월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 거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수색 작업을 통해 당시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10일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에 성공한 뒤 진입로 확보 등 준비를 거쳐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을 벌였다.

한편 현재 목포 신항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조사를 위해 당분간 그 자리에 둘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전남선관위 '법정 초과 선거비' 근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지원봉사자 등에게 법정수당 기준을 초과한 선거활동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보성근의원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성근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사무원 5명과 지원봉사자 7명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96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다.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아 벽보와 차량 등 1285만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B씨도 함께 고발됐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떨어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건우 New Square 용산타워 조은프라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